

홍명보 · 손흥민 · 이영표 · 박지성, AFC 팬투표 베스트 11

4주간 팬들 직접선택 'FIFA 월드컵 베스트 아시안 팀 11'

한국 · 사우디아라비아서 각각 4명...일본서 3명 뽑혀

아시아 축구 팬들이 투표로 뽑은 역대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베스트 11'에 홍명보, 박지성, 이영표, 손흥민 등 '태극전사'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8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주간 팬들이 직접 선택한 'FIFA 월드컵 베스트 아시안 팀 11'을 발표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와 '외투' 이영표,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손흥민이 선정됐다.

팬들은 총 11명을 뽑았는데, 국가별로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4명, 일본이 3명이었다. 일본에서는 나가토모 유토(수비수), 나카타 히데토시, 혼다 케이스

케(이상 미드필더)가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먼저 '4-4-2'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수비진에는 홍명보와 이영표가 팬들의 선택을 받았다.

AFC는 "2002년부터 2010년 월드컵에 출전한 오른쪽 풀백 이영표와 2002 월드컵에서 한국의 4강 진출을 결정짓는 승부차기를 성공시킨 중앙 수비수 홍명보가 뽑혔다"고 설명했다.

미드필더에는 박지성의 이름도 포함됐다. 박지성은 2002 한일 월드컵부터 2010 남아공 월드컵까지 3개 대회 연속 출전했다. 아울러 최전방 투톱에는 손흥민도 이름을 올렸다.

◇ AFC 팬 선정 'FIFA 월드컵 베스트 아시안 팀 11' (4-4-2)

△골키퍼

모하메드 알데아에아(사우디)

△수비수

이영표 홍명보(이상 한국) 압둘라 조브로마위(사우디) 나가토모 유토(일본)

△미드필더

박지성(한국) 푸아드 안와르(사우디) 나카타 히데토시 혼다 케이스케(이상 일본)

△공격수

손흥민(한국) 사미 알자베르(사우디)

AFC는 "2002 월드컵부터 2010년 남아공 대회까지 나온 박지성이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를 차지했다"며 "손흥민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상대로 2-0 승리를 이끈 득점을 넣어 유명세를 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AFC는 팬 투표로 뽑은 베스트 11과 함께 통계 전문가 사이트 옵타(OPTA)가 선정한 '역대 아시안 베스트

11'도 발표했다. 옵타의 베스트 11에는 태극전사 6명이 포함됐다. 이운재가 골키퍼 부문에 뽑혔고, 송중국, 김태영, 홍명보(이상 수비수), 박지성(미드필더), 손흥민(공격수)이 아시아 최고 선수로 선정됐다.

“극장골 넣은 이강인, 잃어버렸던 천재성 되찾았다”...극찬

레알 마야돌리드전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



발렌시아의 이강인이 8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레알 마야돌리드와의 경기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발렌시아 페이스북 캡처)

스페인 언론이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터트린 발렌시아 미드필더 이강인(19)의 활약상에 찬사를 보냈다.

이강인은 8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레알 마야돌리드와의 '2019-20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5라운드에서 후반 44분 결승골을 작렬, 2-1 승리를 이끌었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강인은 1-1로 팽팽하던 후반 19분 카를로스 솔레르 대신 그라운드를 밟았다. 지난달 28일 비야레알전 이후 3경기 만에 첫 출전 기회

였고, 보로 감독대행 체제에서 첫 경기였다. 이강인은 후반 44분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드리블 한 뒤 강력한 왼발 슈팅을 가까운 포스트 방향으로 날리며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9월25일 헤타페전 이후 약 10개월 만에 나온 이강인의 시즌 2호 골이었다.

경기 후 마르카는 “이강인이 발렌시아의 스타가 됐다”며 “그는 올 시즌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번 경기에서 잃어버렸던 천재성을 되찾았다”고 호평했다.

이강인의 득점으로 승리를 거둔 발렌시아는 13승11무11패(승점 50)를 기록, 8위로 도약하며 유로파 출전 희망을 이어갔다.

유로파 출전권이 주어지는 7위에 올라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는 1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51(15승6무13패)를 기록 중이다.

마르카는 “최근 부진했던 발렌시아가 이강인의 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유로파 출전을 향한 기대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발렌시아는 오는 13일 레가네스와 36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정동진 광주시검도회 부회장, 8단 대회 준우승

가장 권위있는 8단 검도대회서 은메달 획득...광주 검도 자존심 지켜



정동진(56) 광주광역시검도회 부회장(광주서석중 교사)이 최근 열린 8단 검도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4일 충북 음성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8단 검도 선수권대회'에서 정 부회장은 은메달을

목에 걸며 지역 검도의 자존심을 지켰다.

정 부회장은 예선부터 상대를 제압하며 준결승에 진출해 서남철(서울)을 머리치기 환관으로 이기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경기에서 정 부회장은 김경국(대구)을 상대로 허리를 공격하며 선취 득점에 성공했다.

그러나 경기 중반 접전 끝에 머리와 손목을 잇따라 허용해 1-2 역전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전국에서 8단을 보유한 30여 명의 검사들이 출전한 이 대회는 우리나라 검도 고단자 대회로서 명실상부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꼽힌다.

정 부회장은 이 대회 제6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김가람, 차유람과 '3쿠션 첫 맞대결' 2-1 역전승

SK 렌터카 챔피언십 8강 진출, 대회...2연패 도전

'포켓볼 여제'였던 김가람(37)이 '포켓볼 여신'으로 불리던 차유람(33)과 3쿠션 전향 후 첫 맞대결에서 승리했다.

김가람은 8일 그랜드워커히서울 컨벤션센터 1층 워커히에서 열린 2020-21 프로당구(PBA) 투어 개막전 'PBA-LPBA SK 렌터카 챔피언십'의 LPBA 16강전에서 차유람을 세트 스코어 2-1(4-11 11-9 9-6)으로 제압했다.

이날 경기는 포켓볼에서 활약하던 두 선수가 3쿠션으로 전향한 뒤 처음으로 성사된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뜨거운 관심만큼 흥미로운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다.

승자는 김가람이었다. 8강에 진출한 김가람은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대회 2연패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차유람은 자신의 최고 성적인 8강을 넘어설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출발은 차유람이 좋았다. 1세트에서 김가람의 부진 속에 11이닝째 연속 4득점으로 11-4로 승리했다. 차유람의 에버리지는 1,000으로 평범했지만 김가람의 에버리지가 0.364로 저조했다.

기세를 몰아 차유람은 2세트에서도 첫 이닝부터 4득점하는 등 초반 5-1로 앞서나갔다. 그러나 김가람은 5-9로 뒤져 패색이 짙은 9이닝에서 하이런 6득점으로 단숨에 승부를 뒤집으며 세트를 가져갔다.

마지막 3세트 김가람은 몸이 풀린듯 1이닝부터 6득점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후 김가람이 연거푸 아깝게 득점에 실패하는 사이 차유람이 야구만큼 점수차를 좁히며 5-6까지 따라붙었다.

이후 두 선수 모두 쉽사리 득점하지 못했다. 결국 김가람이 12이닝 때에 어렵사리 매치포인트를 따내며 역전승을 완성했다.

휴식기 앞둔 KLPGA, 이소영 · 김효주 등 첫 다승 도전

내일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개막

여름 휴식기를 앞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시즌 첫 다승자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KLPGA 투어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총상금 10억원)이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부산 기장군 스톤게이트 컨트리클럽(파 72·649야드)에서 열린다.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은 올해 처음 열리는 대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월 2020시즌에 돌입한 KLPGA 투어는 현재까지 7개 대회를 진행했다. 약 천후로 조기 종료된 S-OIL 챔피언십을 제외하면 6명의 챔피언이 탄생했는데 아직 다승자는 없다. 이소영(23·롯데), 김효주(25·롯데) 등은 이번 대회에서 첫 다승을 노려볼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지난 5월 E1 채리티 오픈에서 우승한 이소영은 현재 대상 포인트 1위, 상금 1위 등을 기록하며 뛰어난 컨디션을 뽐내고 있다. 지난주 맥콜·용평리조트 오픈에서도 공동 2위에 오르는 등 8개 대회에서 6번 톱10에 올랐다.

이소영은 “새로운 대회와 코스를 경험하는 것은 재미있을 것 같다”며 “바닷바람과 좁고 짧은 페어웨이가 이번 대회 특별 역할을 할 것 같다. 우선 예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최종적으로 톱10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목 통증으로 지난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 도중 기권했던 김효주도 지난주 대회를 건너뛰고 필드로 돌아온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가 중단된 상황에서 김효주는 6월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는 등 2020시즌 상금 2위, 대상포인트 3위 등에 올라왔다.

최혜진은 현재까지 출전한 7개 대회에서 모두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가 고향인 김해와 가까운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시즌 첫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나아가 LPGA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세영(27·미래에셋), 이정은(24·대방건설), 지은희(34·한화큐셀) 등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뛰는 안선주(33·모스버거), 이보미(32·노부타엔터프라이즈), 배선우(26·다이와랜드그룹) 등 해외파도 2020년 첫 승을 노린다.

최혜진은 지난 S-OIL 챔피언십을 1위로 마쳤지만 약천후로 1라운드 성적만으로 순위를 정해 우승으로 인정 받지 못했다.

최혜진은 현재까지 출전한 7개 대회에서 모두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가 고향인 김해와 가까운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시즌 첫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나아가 LPGA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세영(27·미래에셋), 이정은(24·대방건설), 지은희(34·한화큐셀) 등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뛰는 안선주(33·모스버거), 이보미(32·노부타엔터프라이즈), 배선우(26·다이와랜드그룹) 등 해외파도 2020년 첫 승을 노린다.